

**이바나**  
Ivana  
스페인 ▶ 6대륙

행성을 한 바퀴 도는 것.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우주선을 타고 하는 게 아니다. 고무를 뭉쳐 만든, 무릎까지 오는 두 바퀴로만 여행하는 것. 그것이 모터사이클 여행자 이바나의 목표였다. 그녀는 과거 3개월간 인도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여행의 교통수단은 1970년대 클래식 모터사이클이었다. 두 바퀴로 한 첫 여행이었다. 바이크 여행의 후유증은 길었다. 전 세계 여행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고, 그 꿈속에는 항상 바이크가 있었다. 그녀는 세계 여행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비용을 충분히 모은 다음 스페인을 기점으로 세계 투어를 시작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기로 마음먹었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바이크에 몸을 실었다.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전에는 절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확고한 결심은 모든 대륙을 경험하는, 말 그대로 행성을 한 바퀴 도는 업적으로 이어졌다.

**2011년형 아마하 테네레 XT 660 Z**  
그녀의 여행 파트너는 아마하의 2011년식 테네레 XT 660 Z 모델이다. 그녀는 바이크를 선택할 때 세 가지를 유의해서 살핀다. 먼저 큰 연료 탱크다. 사막 같은 곳을 달릴 때 연료 부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계식 모터사이클이다. 스크루와 볼트만 있으면 고칠 수 있어서다. 기계식은 말라위나 맨해튼 어느 곳에서든 고장이 날 경우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아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자식 모터사이클이라면 오지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손쓸 방도가 없다. 마지막은 어떤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듀얼 퍼포스 바이크다. 세상의 모든 길이 아스팔트인 것은 아니다. 모래나 진흙도 있다. 듀얼 퍼포스 바이크는



중 만난 거센 장마비, 나미비아 사막에서 겪은 모래 폭풍을 떠올렸다. 그녀가 꿈은 최고의 코스는 타지키스탄 파미르산이다. 그곳에서의 추억은 깊고 뚜렷하게 남아 있다. "9월이 되면 꼭 파미르산으로 향했죠. 해발 5,000m에 위치한 도로가 서바이벌 게임 수준으로 험해지거든요." 일부러 험로를 찾아 달리는 그녀에게 강습은 필요 없을 듯하다. "여행 철칙 중 하나는 호텔을 피하는 거예요. 4년 반 동안 지역 주민에게 매일 머물 곳을 물어야 했죠." 그녀는 숙소를 목표로 달리지 않는다. 밤이 되면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자고 생활했다.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바나가 말했다. **여행에서 발견한 능력**  
이바나는 길고 외로운 도로를 달리는 것을 사랑한다. 끝없이 이어진 도로를 달리지만 그녀는 결코 지루할 틈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장거리 모터사이클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설명했다. "제가 성장하는 것을 느껴요.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죠. 장거리 여행은 명상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여행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지루한 순간은 절대 없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그녀는 장거리 모터사이클



여행이 자신감을 북돋아줬다고 말한다.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창의적인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생겼어요." 또한 그녀는 세계의 여러 잡지에 자신의 사진과 이야기를 게재하는 에디터의 능력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모터사이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바나는 말한다. "사람과 문화, 전 세계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것이죠." **꿈을 이룬 순간**  
4년 반 동안 라이딩을 했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하지만 그녀가 꿈은 가장 즐거운 날은 고향으로 향하던

날이다. "집으로 돌아오던 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여정이 끝나서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했죠." 시작 전에는 두 바퀴로 지구를 돈다는 게 불가능한 도전 같았다. 물론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것은 아니다. 세상의 별별 곳을 다니다 보면 두려운 순간도 마주한다. "타지키스탄 산속을 지날 때 눈 폭풍에 갇힌 적이 있어요. 해발 4,500m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좁고 거친 길이었죠." **지구와의 교감**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불쑥 외로움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지구 반대편,



아무것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 길에서 그녀는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했을까. "기나긴 여행을 하는 동안 지구와 또 우주와 교감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수백 킬로미터 길이 저를 감싸고 있는 듯하죠. 그럼 그 길에서 제 자신을 돌켜보고, 솔직히 제 자신을 마주하게 돼요. 그 순간 외로움의 감정은 사라지죠." 하지만 그녀가 꿈은 모터사이클 로드 트립의 가장 큰 매력은 진정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장소를 가죠, 극한의 추위를 겪기도 하고요. 사하라의 열기나 파타고니아의 바람을 느끼기도 해요. 모터사이클을 타고 여행하면 숨을 곳이 없어요. 오직 저 자신과 지구만이 존재할 뿐이죠."

**두 바퀴가 닿을 곳**  
모터사이클을 타고 여행하면 언제 어디서 도로가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바이크 위에서 모든게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럼 그녀에게 바이크란 어떤 의미일까. "가족이자 여행 메이트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라이딩할 때만큼 자유롭다고 이바나는 말한다. 내면에서 꿈틀대는 감정이 얼마나 슬프든, 그 슬픔의 크기가 어떠한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릴 때만큼은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고 한다. 그녀는 두 바퀴로 지구와 교감했다. 4년 반 동안 70개국을 여행했다. 물론 유엔 회원국이 1백93개에 달하니 아직 그녀는 세상의 절반만 여행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알려지지 않은 길, 매체에서 다루지 않은 지역을 두 바퀴로 경험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고함에 돌아온 그녀에게 묻는다. 어떻게 겨우 모터사이클로 여행할 생각을 했는지. "이 세상에는 크고 비밀스러운 곳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녀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두 바퀴가 아직 닿지 않은 나라는 1백여 개가 넘는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장소는 주로 사막과 외진 곳이죠. 그래서 몽골에 가보고 싶어요. 제 바킷 리스트에 오래전부터 자리하던 곳이기도요."